

|| “한수원 본사 이전부지 선정 연기”

20인 내외 민관공동협의체 구성 경주시와 합의...토론회등 개최 의견 수렴

한국수력원자력(사장 이종재)은 본사의 경주이전을 위한 부지선정 작업이 이르면 10월께로 늦춰질 전망이다. 한수원은 본사이전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8월말까지 부지를 선정할 계획이었으나 부지선정을 앞두고 지역간의 갈등이 증폭, 경주시민들의 공감대 형성과 각계각층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위해 이를 연기하기로 했다.

한수원은 우선 의견수렴을 위해 20인 내외의 민관공동협의체를 구성 운영키로 경주시와 합의했다. 이 민관협의체에는 지역주민, 시민단체 대표, 학계, 종교계, 한수원, 경주시, 시의원 등이 참여한다.

민관협의체는 토론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지역주민과 관련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부지선정 방안을 협의하고 한수원 본사이전 및 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자문역할을 맡게 된다. 한수원과 경주시는 이를 통해 경주시의 장기발전과 이주 직원들의 근로환경을 위해 가장 적합한 위치를 본사 이전 부지로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한수원 관계자는 “신중을 기하기 위해 부지선정 일정을 연기했다”며 “특별법에 따라 부지선정계획이 내년 1월1일까지 확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빠른 시간내에 주민들의 의견수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수원 본사이전은 방폐장 관련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부지선정 등에 관한 계획을 2007.1.1까지 확정하고 2010년 10월말까지 경주로 이전을 완료해야 한다.

|| 중부발전, 제주화력 3호기 500일 무고장 달성

한국중부발전(사장 정장섭)은 제주화력발전소의 기력 3호기가 지난 8월 22일 2시49분을 기준으로 500일 장기 무고장운전의 위업을 달성했다.

이번 500일 무고장운전 기록은 각종 정지시간을 제외한 실운전 시간만 기준한 것으로 2005년 3월 12일부터 지난 8월22일까지 이룩한 성과다.

중부발전은 평소 제주화력발전소 전 직원이 적극적으로 취약설비를 보강하고 강도 높은 모의사고 훈련을 통해 비상조치능력을 높이는 한편 고장의 큰 원인 중 하나인 인적 실수 방지를 위해 꾸준히 노력한 결과라고 전했다.

중부발전은 지난 6월 보령화력 2호기의 2,500일 장기무고장운전 달성에 안주하지 않고 더욱 강도 높은 훈련과 철저한 예방작업을 통해 안정적인 전력공급이라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것을 다짐했다.

중부발전 관계자는 “이번 장기무고장운전 달성은 제주지역의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해 제주화력발전소 전 직원의 끝에 달성한 성과라서 더욱 의미가 크다”며 “안정적인 발전소 운영의 좋은 본보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II 서부발전, 중소기업 기술이전 통한 상생 강화

한국서부발전(사장 김종신)은 8월 16일 본사 대회의실에서 (주)에네스코와 산업재산권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다. 서부발전은 이번 계약에서 자체 보유중인 산업재산권 중 '석탄화력 보일러 운전 중 송풍기 구동장치 고장 정비방법' 과 '보일러 송풍기 구동장치의 고장진단 시스템' 등 2건의 특허에 대해 중소기업인 (주)에네스코에 무상으로 기술을 이전하기로 하였다.

이번 계약체결로 중소기업은 이전된 특허기술을 활용한 우수제품 사업화 및 기술력 향상을 기할 수 있고, 서부발전은 중소기업 기술력 향상에 따른 발전분야 정비품질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

실무 책임을 맡고 있는 서부발전 김상태 기술전략실장은 "이번 기술이전이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성공사례가 되기를 바란다"며 "서부발전은 앞으로도 보유 산업재산권의 지속적인 기술이전을 통해 중소기업 활성화와 기술력 향상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부발전은 현재까지 총 15건의 산업재산권을 중소기업에 무상 기술이전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보유중인 산업재산권에 대하여 지속적인 기술이전을 실시하여 중소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지원하고, 상생의 협력관계 구축에 노력할 계획이다.

II 동서발전, 동해태양광 CDM 사업 국내최초 UN 등록 - 태양광으로 국내최초 CDM 사업, 향후 10년간 이산화탄소 5,650톤 저감 효과 -

한국동서발전(대표 이용오)가 지난 8월 21일 유엔기후변화협약 집행위원회로부터 동해화력발전처내에 설치한 태양광 발전설비의 태양광 청정개발체제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 사업 등록을 승인 받았다. CDM이란 교토의정서상 온실가스 의무감축국(선진국)이 개도국과 같은 비감축의무국에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벌이거나 개도국이 시행한 감축사업에서 발생한 감축실적을 구매, 자국의 감축목표 달성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 이번 동해태양광 CDM 승인은 세계에서 497번째, 태양광으로는 국내 최초다. 이번 승인은 동서발전이 지난 5월 2일 산업자원부로부터 동해태양광 CDM 프로젝트 국가승인을 받은 후 UN기후변화협약 집행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 얻은 결과다.

동서발전은 동해태양광 UN승인이 국내 CDM 등록 사업 활성화에 기폭제가 될 것이라 전망했다. 이번 사업으로 향후 10년간 총 5,650톤의 이산화탄소(CO2)를 저감할 것으로 예상되며 저감실적은 배출권 형태로 선진국에 판매하거나 우리나라가 의무감축대상국에 포함될 경우 자체 감축실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동서발전은 동해태양광 뿐만 아니라 정부와 신재생에너지 공급참여 협약에 따라 2008년까지 2,460억원을 투자하는 등 기후변화협약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동해태양광 발전시설은 지난 3월 16일에 첫 삽을 뜬 후 약5개월 후인 8월 4일에 상업운전을 개시했으며, 총 6,080여장의 모듈로 구성된 태양전지가 연간 902MWh의 전력을 생산하게 된다.

|| 남동발전, 중소기업과 「신기술인증 취득 지원」협약 체결

한국남동발전(사장 박희갑) 발전처는 협력중소기업인 금성제어기(주)의 “동북 알미늄모선 외부감시형 MCC” 등 8개 기업 9개 제품에 대하여 8월 25일 본사 대회의실에서 「신기술인증 취득 지원」협약을 체결하였다.

우수기술 및 제품을 보유하고도 판로확보에 어려움이 많은 협력중소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해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던 중 신기술인증제품 우선구매 및 20%이상 의무구매 제도에 착안하여 본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이미 신뢰성을 입증 받아 발전소에 납품하고 있는 제품을 대상으로 인증획득 가능성을 검토하여 지원대상 기업을 최종 확정하였다.

협약식에 앞서 정문수 발전처장은 “제품 구매시 신기술인증제품이 있는 경우 반드시 해당품목 구매액의 20% 이상을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함으로, 신기술인증 취득이야말로 중소기업이 판로확보를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 면서 앞으로도 중소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계속할 것이며, 이 협약을 계기로 더욱더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하였다.

|| 두산중공업, 신고리 원전 3,4호기 주기기 수주 - 국내 첫 1,400MW급, 해외 수출모델로 육성

두산중공업은 8월 28일 한국수력원자력(주) 사옥에서 이남두 사장과 한국수력원자력 이중재 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신고리 3,4호기 원자력발전소에 들어가는 주기기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에 따라 두산중공업은 원자력발전소에 들어가는 원자로, 증기발생기 등의 핵중기 공급계통(NSSS, Nuclear Steam Supply System)과 터빈발전기 주기기를 자체 기술로 설계, 제작해 공급하게 된다.

신고리 3,4호기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 소재 기존 신고리 1,2 원자력발전소 인접부지에 위치하게 되며 오는 2013년 9월과 2014년 9월에 각각 준공 예정이다. 신고리 3,4호기는 국내 기술진에 의해 독자적으로 개발된 신형 원자로 설비 모델인 APR1400(Advanced Power Reactor 1400)이 처음 적용되는 차세대 원전으로서, 기존 1000MW급 한국표준형원전보다 발전용량이 향상된 1400MW급이며, 안전성이 대폭 강화된 것이 특징이다.

두산중공업이 이번에 공급하게 될 원자로와 증기발생기는 고온, 고압, 방사능에 견딜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고도의 설계, 제작기술을 요하는 원자력발전소의 핵심설비로서, 제작기간만 약 4년이 소요된다. 터빈발전기 역시 고도의 소재제작 능력, 가공 기술이 요구되는 핵심설비이다.

두산중공업 원자력BG 김태우 부사장은 “신고리 3,4호기는 국내 기술진에 의해 독자 개발된 신형경수로 모델(APR1400)이 처음 적용되는 만큼, 이번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APR1400을 향후 해외 수출모델로 키워 나가겠다”고 말했다.